

14. 후백제와 최후격전을 하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견훤이 써보낸 편지를 내던지며 량검이 부르짖는 소리였다.

《투항이라니? 당치않은 말ियो! 이는 고려가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 명목을 세우려는것이 분명하오.》

룡검도 입에 거품을 물고 나섰다.

이찬 능환이 견훤의 편지를 집어들며 말했다.

《우리 후백제와 최후결전을 벌리려는것이지요. 그 쪽지를 지금 떼고있는것이오이다.》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소?》

신검이 겁에 질린 눈으로 능환에게 물었다.

《준비를 해야 하오이다. 이번이 마지막싸움이 될수도 있사오이다. 준비를 해야 하오이다.》

이찬 능환은 다시금 침착히 되뇌이였다.

《우리에게는 10만의 정예군사가 있소이다. 전하께서는 신라가 고려에 넘어갔다고 낙심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소이다. 신라는 군사라고 해야 기껏 1만을 넘지 못하오이다. 고려군에 만명이 더 보태여진셈이오이다. 고려는 맘껏 잡아야 군사가 5만밖에 되지 않사오니 한번 맞서볼만 하오이다.》

《고려가 최후결전을 하련다면서 5만으로 접어든단 말씀이요? 우리가 10만을 가지고있는것을 그들도 모르지는 았을터인데...》

신검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였다.

《그들이 새로 징발할것이오나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더하면 되는 것이오이다. 인총은 우리가 더 많지 않사오이까. 고려는 군사수에서만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것이오이다.》

능환이 희뜩하게 장담해나섰다.

《신라가 고려에 투항한것은 차라리 잘되었소이다. 이제 우리가 고려만 먹어치우면 신라도 함께 먹는것으로 될터인즉 결국은 두벌손질을 하지 않게 된것이나 같소이다.》

능환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기세를 돋구었다. 이에 량검과 룡검도 덩달아 날뛰었다.

《길고짧은것은 대박야 알것ियो.》

《우리가 세나라를 통일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단 말ियो?》
하지만 신검은 말이 없이 낫색이 하얗게 질려있었다.

이러는 신검을 띄여보며 량검은 비웃음을 머금고있었다. ...

지금 견훤은 고려궁성 남쪽안채에서 한껏 귀를 돋구고 소식을 기다리고있었다. 완산주에 띄여보낸 자기의 편지를 아들녀석들이 골백번은 더 보고도 남았을터인데 일언반구 반응이 없었던것이다.

견훤의 울화병이 다시금 도지기 시작했다.

그따위 란신적자들을 그래도 사람으로 믿고 기대를 걸었던 내가 잘못이다.

아! 불쌍코나, 견훤아! 너는 정말이지 자식복이 없는 놈이로구나!

견훤은 장탄식을 하고 나앉았다.

능환이! ... 이 견훤을 받들어 한생 변함이 없을거라고 그렇게도 침방울을 튕기던 그가 이렇게 돌변하다니...

후백제를 함께 일으켜세웠노라 자고자대하는것을 곱게 내쳐둔게 애당초 잘못이었다. 교만에 빠져 안하무인으로 노는것을 일찌감치 단속해두지 못한탓에 마지막에는 제 상전의 머리끄덩이까지 둘러메치는 것이 아닌가.

견훤은 능환이 가차없이 죽여버린 간무를 생각하자 가슴이 터져와 금시 숨이 멎는듯 했다.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그를 함께 있자고 붙잡지만 앉았어도 그가 그렇게 헛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터인데... 사람두, 모질지도 못하

지, 왜 그때 나를 뿌리치고 제갈길을 그냥 가지 않았을가. …

견훤은 제가 하도 간절히 간청하는 바람에 할수없이 눌러앉은것은 생각지도 않고 애꿎은 간무를 헛되이 나무랐다.

그토록 능수능란하게 수를 꾸며주며 마지막까지 나를 받쳐주더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능환이의 칼날 하나 피하지 못했다는것이 견훤에겐 리해되지 않았다.

그가 능환이따위가 죽이련다고 해서 그렇게 고분고분 죽을 위인이었던 말인가. 아니, 그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 절대로… 하다면…

부지중 견훤은 간무가 능환의 칼을 우정 피하지 않은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십분 그럴수도 있다는 짐작이 들었다.

견훤이 자기의 인생길이 비참하게 끝날것이라는걸 미리 내다보고 일찌감치 죽음을 받아들인것일수도 있었던것이다.

신라토배기인 그가 제가 나서자란 고국땅을 견훤과 함께 마음껏 유린한 자기 인생을 뒤늦게나마 후회하지 않았으리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였다.

그리고보면 그는 나와 같은 길을 가면서도 생각은 달리하였구나. 동상이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마음 한구석에 회의심만은 늘 품고있은게 분명해. 나와 한 약속은 저버리지 못하겠으니 그저 맹목적으로 의무감에 할수없이 이날껏 나를 따른것이야.

생각이 이에 미치자 견훤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음갈아선 당장에 달려가 무덤을 파헤치고라도 그를 일으켜세워놓고 따지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저승에 간 몸이였다.

아아, 이 견훤이란 놈은 신하복도 없는 놈이었구나! …

견훤은 진심을 바치는 충신을 두지 못한 임금은 제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구실을 바로할수가 없다는것을 늦게나마 절감하게 되였다.

견훤은 혼자서 쓸쓸하게 새해를 맞았다.

936년 정월 초하루날, 왕건은 그때까지도 등을 돌려대고있는 이전

후백제왕이었던 견훤이와 신라왕이었던 김부를 화해시키려고 술자리를 마련하고 두사람을 동시에 불렀다.

하지만 견훤은 병을 핑계대고 고집스레 버티었다. 그는 제 막내아들벌밖에 되지 않는 김부와 마주앉는것이 그이상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있었다.

고려에게 깃을 들인 처지는 같으나 먹은 나이를 생각하면 그를 대하느니 차라리 쥐구멍에 들어가고픈 심정인 견훤이었다.

왕건은 할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궁으로 갔다.

태자 무와 함께 가려다가 견훤이 자식들에게 쫓긴 몸인것을 생각하고는 그만두었다. 태자 무의 어머니인 장화왕후를 딸리려고 했다가 또 그만두었다. 그의 아버지 오다린을 죽인것이 바로 견훤이었던것이다.

왕건은 금필의 딸인 동양원부인을 데리고 나섰다. 견훤의 후실 고비가 애끓은것을 생각한것이였다.

금필이 부인 립씨와 함께 왕건을 동행하였다.

자기를 후백제땅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준것이 금필인지라 견훤은 금필과는 사이가 풀려있었다. 이전엔 서로 싸움도 많이 하였지만 생사기로서 건져준 은인이 된 다음부터 견훤은 금필만 찾았다.

견훤은 왕건과 금필을 마주하자 눈물부터 흘리였다.

이들이 새해벽두에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준것이 고맙기 그지없었던것이다.

《상보께서 거동이 불편하시다기에 걱정이 되어 나왔소이다.》

왕건이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였다.

《폐하께서 이렇듯 나를 대해주시니 내 또한 허물없이 부탁부터 하려고 하오이다.》

《어서 그러시오.》

《로신이 폐하께 의탁한것은 폐하의 힘을 빌어 역자를 치자고 해서였소이다. 원컨대 폐하께서 군사를 빌려주시여 소신이 그를 인도하고 나가 역적무리들을 치게 하여주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것이로소이다. 들어주옵소서.》

《고려군사를 빌려 후백제의 아들을 치겠다는 말씀이시요?》

왕건은 아연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렇소이다. 정초부터 소란을 피우려다 나무람마시옵고 부디 신의 청을 들어주옵소서.》

《그것은 전쟁을 말하는것이온데... 상보계선 우리 고려보고 후백제와 전쟁을 하라고 부추기는것이요?》

견훤은 왕건이 나무리자 한순간 주춤거렸다. 그러나 내친김에 뺨쳐볼 모양으로 그냥 간청했다.

《그따위 애녀석을 놀려버리는 일을 전쟁이라고까지 하겠소이까? 다 망한것을 거두는 일이오이다. 소신이 일궈세웠다가 소신의 불찰로 무너뜨린 집안이니 소신이 재간껏 수습하려 함이외다. 빌고 또 비오니 부디 제 청을 들어주옵소서.》

《상보, 좀더 기다려보소이다. 후백제가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소이다.》

왕건은 견훤을 얼리느라 땀을 빼야 했다.

《폐하께옵선 이 로구를 너무 어린애처럼 다루시는군요. 소신의 자식들이 지금 고려와 맞서보려고 전쟁을 준비하고있는것을 모르는줄 아시요? 저것들이 더 자라나기 전에 쳐야 하오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을 풀도록 도와주소서.》

견훤이 하도 완고하게 나오니 왕건으로서도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하면 조만간에 치러야 할 전쟁은 분명하였다. 피할수 없는 마지막결전을 눈앞에 두고있었는데 그 명목을 견훤이 제가 만들어 주고있는것이였다. 어찌 보면 견훤의 처사는 고맙기까지 한것이였다.

그러나 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였다. 더도 말고 반년은 더 들어야 했다. 그간의 후백제의 힘을 타진해본 결과 얻어진 결론이였다.

금필이 식령의 간자들까지 총동원하여 알아본바에 의하면 후백제의 군사력은 예상외로 강해졌다. (금필은 그사이 달무와 아람 이외에도 매를 리용하는 정찰조를 몇개 더 조직해서 후백제의 여러곳에 파

하였다.)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조밀한 후백제는 일단 싸우자고 마음먹고나서니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하고있었다.

고려조정은 전쟁준비에 총력을 기울이였다.

북방수비에 동원되였던 군사들이 남쪽으로 이동되였다. 갓 정리된 북방의 인력과 자원이 깡그리 동원되고있었다.

금필은 골암진 북쪽의 고려땅에 영주한 녀진족들에게까지 군사를 징발하도록 어지를 내리게 주선했다. 나라의 곳곳에서 새로 모집된 군사들에게 조련을 주는 한편 쇠를 녹여 병쟁기를 만들고 곡식을 모아 군량을 확보했다.

싸움은 여름철에 가서야 개시할수 있었다.

이를 알리 없는 견훤이 제 사정만 사정이라고 때를 쓰고있는것이였다.

《상보깨읍선 자중하시오. 란신적자를 치고싶은 마음은 우리도 같소이다. 아직은 때가 일러 그러는것이니 안심하시고 기다리시오이다.》

금필이 나서서 얼리자 견훤은 그제야 수그러들었다.

고려와 후백제는 싸울 차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겨울이 언제 가고 봄날이 언제 오는지도 모를 지경이였다.

금필은 왕건과 함께 국력을 정비하고 동원준비를 갖추는데 정력을 다하였다.

태자 무까지 참가한 가운데 지몽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안을 토의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병력과 장비상태를 점검하는 일도 놓치지 않고 간간히 해나갔다.

금필은 왕건이 후백제와의 최후결전에 다시금 팔을 걷고나서자 사기가 났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던것이다.

견훤을 만나고 돌아온 뒤, 그러니까 설을 쇠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였다.

최언위와 최지몽, 슬희와 함께 금필을 불러들인 왕건이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떴다.

《집이 그대들과 한가지 상론할것이 있노라. 이전에도 몇번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후백제도 신라처럼 자진귀속의 방법으로 통합할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요. 웬 일인지 짐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그 길로 가는것이 좋으리란 생각이 자꾸 드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폐하께서 또 동요하고있구나.)

금필은 대뜸 긴장해졌다. 즉시에 불안감이 온몸을 엄습해왔다. 군사적견지에서 볼 때 이는 분명한 착오이기때문이었다. 상대가 풀이 죽어있는거라면 몰라라 서슬이 덩딩해서 기세를 올리고있는 때인데 자진귀속을 바라다니 웬 말인가. 시간이 갈수록 상대의 힘만 키워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더 어려워질뿐이라는걸 폐하께서 모른단 말인가? 고려가 주도권을 확고하게 틀어쥐고있는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밀어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가 아닌가.

금필은 왕건이 어째서 신라는 포섭하되 후백제와는 싸움으로 결속하자고 한 초기의 전략을 포기하려 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짐은 후백제와의 최후결전을 해야 한다는 그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요. 그 방법에 한해서 다를뿐이지. 힘으로 그들을 눌러버려야 함은 다를바없으나 그들스스로가 손을 들게 해서 량자가 다 희생을 줄이면서 통합을 하자는것이요. 나는 통합후의 일을 생각해서 그러는것이요. 땅을 차지하는 일은 이제 와서 그리 힘든 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후에 백성들을 다스리는것이요. 고려군의 칼날에 자식과 남편을 잃은 후백제사람들이 우리를 곱게 볼수가 있겠소? 민심을 느끼는 일이 결코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니 그 점을 고려해보아야 할것이요.》

왕건은 승리후의 정사를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사람의 시야는 확실히 제한되어있다. 대체로 제가 그러안은것만큼 생각하는것이다. 그래서 임금이 보는 시야는 신하들보다 넓은것이다.

금필은 그 점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해본적이 없었다. 지금도 금필은 왕건의 견해가 틀린것은 아니라고 확신하고있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의견을 곱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일까?! ...

《짐은 결심을 내렸소. 그대들은 짐의 의도를 알고 그 방향에서 처리안을 짜도록 하오.》

왕건은 상론을 하자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서 잠시의 론의도 없이 령을 내리고말았다.

이전같으면 알아들었소이다 하고 일어서야 할것이였으나 금필은 쉬이 일어서게 되지 않았다. 후백제의 항복을 받는것으로 싸움이 끝나야 하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유나 설복으로 항복하게 하라는 령에는 응하고싶지 않아서였다.

금필은 생각을 더듬어보았다.

(쇠약한 신라는 고려에 의지하는 정책을 써왔으므로 자연히 그들을 보호해줘서 그들스스로가 복속돼오도록 한 전략이 옳았다. 하지만 후백제는 다르다. 그들은 애초부터 고려와 대결하였고 시종 우열을 다투어온 적이 아니었던가. 이들에게는 힘의 대결로 패배를 명백히 인정시켜야만 후환이 없을것이다. 통합이후에도 절대로 머리를 들 수 없게 하자면 그 길밖에 없다. 투항은 받아야 할 일이나 그것은 따귀를 치고나서 받아야만 한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금필은 머리를 들었다.

《폐하! 외람된 말이오나 소신은 생각을 달리하오이다.》

《무엇을 달리한다는건가?》

왕건은 뜻밖이러는듯 금필을 가로보았다.

《투항 그자체가 패배를 인정하는것은 사실이오나 그들에게 자진귀속이란 이름을 달아주게 되면 후일에 시끄러운 일이 없지 않을가 녀려되어 하는 말이오이다. 신라와는 달리 후백제는 감히 세나라통일의 주역까지 꿈꾼 나라가 아니오이까. 이들에게 자진귀속이란 당당한 이름을 달아준다면 기가 덜 꺾인 이들이 통합이후에라도 옛꿈을 되살리자고 나설지 어이 알겠소이까. 잔여세력이 기회를 보아 판가마를 걸어놓고 서서히 힘을 모아 주권을 빼앗자고들든지도 모를 일이오이다. 국권회복을 한답시고 들고일어나서 국호마저 고려가 아닌 후백제로 정할는지 누가 알겠소이까. 이런 후백제는 무조건 힘으로 눌러

놓아서 력사에 명백한 패배를 새겨놓아야 뒤탈이 없을줄 아오이다. 거듭 말하오건대 후백제는 명백히 칼로 치고 그 다음에 항복을 받아야 하오이다. 제 말이 노여우시다면 이 목을 베이소서. 탓하지 않고 곱게 받겠소이다.》

《금필대광도 이제는 짐을 가르치는데 어지간히 익숙해지셨소. 그러니 목을 베란 그 말이겠소?》

옳다는것인지 그르다는것인지 가려내기 힘든 반응을 보이고난 왕건이 이번엔 최언위에게 눈길을 돌렸다.

《최언위태학사는 어떻게 생각하오?》

《폐하! 소신은 방금전에 금필대광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전에 제가 고려로 떠나올 때 최치원어른이 한 말을 생각해보았소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였게 그러오?》

《지금은 폐하께옵서만이 세나라통일을 이끌어낼수 있는 존재이므로 폐하를 따르는것이 지극히 당연한 리치라 하면서도 이후에 고려왕대의 바통을 잇는 대목에서는 신라출신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라 하였소이다. 그 말의 뜻은 신라출신의 왕후들이 낳은 왕자들이 고려왕조의 대물림에서 밀리우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라는것이오이다.》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신라출신왕후 소생이라 해서 대물림을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겠소. 지금도 우린 후백제출신왕후의 소생이 태자로 정해져있소. 부디 고구려출신소생들만이 왕대를 이어야 한다고 정해놓은 법도 없소. 그가 누구든 근본이야 이 짐의 소생들이 아니요? 이 왕건의 피줄기란 말이요. 신라출신왕후 소생이 임금이 되면 다시 신라국을 세울상싶어 그런 말을 하였다오?》

《고려국이야 변함없을테지요만 조정안의 세력권을 차지하는데서 신라출신들이 밀리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지요.》

《그가 그런 말을 다하였소? 이 왕건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니까 고려국은 받들되 신라사람의 자존심은 잃지 말라는 훈계로군. 하기는 고금을 통털어 상고해보건대 조정안의 세력다툼이 어느 나란들 없었

겠소. 레사로운 일이지. 어찌 외척끼리 다투는것뿐이겠소.》

《그래서 하는 말이오이다. 한왕조안에서도 갈래별로 싸고도는게 조정의 레사사일진대 조정안에 다른 왕조가 들어와 가만있자 할턱이 있겠소이까. 후백제왕조는 받아들이지부터 말아야 할줄 아오이다.》

《그러니 금필대광과 같은 생각이란 말이겠소?》

《그러하오이다. 그들이 싸우자고 할 때 쳐버려야 하오이다.》

《지몽공은 어떻게 생각하오?》

《폐하! 소신은 아직 고려밥을 열다섯해밖에는 먹지 못했소이다. 그보다 먼저 스무해를 신라밥을 먹은 사람이고 근본 또한 신라이오이다. 숨김없이 말한다면 이후에 단 한번만이라도 신라출신왕후의 소생이 왕대를 이어보게 하는게 저의 소원이오이다. 물론 그건 변함없는 고려국의 왕조에 한해서 말이오이다.》

《한지붕에 든 사이끼리 너무 출신을 따지는게 아닌가? 하지만 그 욕심이야 그른것이 아니지. 이왕에 말해둘것은 어느 지역 출신소생이 든 지모만 갖추었다면 누구든 그 순위에 따라 고려의 왕대를 이을수 있다는것이요. 지몽공은 묻는 말에나 답을 하오. 그대만은 후백제를 자진귀속시키자는 짐의 뜻을 따르테지?》

《고려왕조의 안녕을 위해 진언하건대 저 역시 후백제는 쳐야 한다고 생각하오이다.》

《짐이 이미 결심하였는데도 따르지 않겠다는거요?》

《신하가 임금을 따르는것은 옳은 길을 갈 때에만 한해서이고 그른 길을 가는 임금은 막아서야 하는것이 진짜충신인줄 아오이다.》

《그렇다?! …》

왕건은 혼자소리처럼 뇌이더니 가볍게 무릎을 쳤다.

《견훤이 나를 부러워할만 하구나! 나는 확실히 신하복이 있어! …》

(?! …)

《짐은 이미 경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소. 인명의 피해를 줄이려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중에 그른줄 알면서도 위안이라도 해볼

양으로 그대들과 말을 해본거요. 후백제는 때려서 항복을 받아내기로 하오.»

《희생을 줄이는것 역시 가볍게 대할 일이 아닌만큼 싸우는 방식을 꾸미는데서 그 문제도 최대한 풀어가겠소이다.》

금필은 왕건이 우려하는 인명의 피해문제도 해결해야 할 요점임을 강조했다.

《응당 그래야 할것이요.》

왕건은 만족해하였다.

《그대들이 있는 한 짐은 무서운게 없소. 더이상 흔들리는 일은 없을것이요. 그 방향에서 후백제와 마지막결판을 해봅시다.》

그날 금필은 왕건이 더는 동요하지 않으리란걸 확신했다.

가슴속이 불붙듯 달아오르고 온몸에 새 힘이 솟구쳤다.

홍안의 짧은 시절에 세웠던 꿈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는 지금의 시각에 현실로 다가오고있는것이였다.

가슴은 마냥 방망이질을 하고있었다.

장부로 태어나 세운 뜻 장하려니와 그 뜻을 이루고나면 그 아니 장할소냐.

금필은 온몸을 불사를듯 뛰고 또 뛰었다.

유난히도 맑고 상쾌한 날씨였다.

금필은 지금 죽령마루에서 김부와 락랑공주를 바라주고있었다.

김부는 자기의 령지인 경주를 시찰하러 가는 길이였다. 경주일대를 점검하고 군사를 확보하여 후백제와의 결전에 대비하라는 어명을 받고 떠나는 길이였다.

부인인 락랑공주가 함께 떠났다.

금필은 락랑공주가 방금전에 속살거리던 말을 떠올리며 즐거운 미소를 머금고있었다.

《작은아버님! 이번 경주길에 동해의 해돋이를 실컷 구경하겠나이다.》

언젠가 서해의 섬에 올라 해돋이 아닌 해돋이를 감상하던 때를 생각해서인지 락랑공주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고있었다. 그때 아무 생각없이 금필에게 안겨들었다가 남의 입거리가 되었던것이 무안스러워서였으리라.

그가 어릴 때처럼 무릅없이 금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금필은 또 한번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사람의 정이란 참으로 이상한것이였다.

금필은 공주들중에서 락랑공주를 제일 고와하였다. 자기 딸이상으로 정을 주었다. 아마도 그것은 신혜왕후가 락랑공주를 남달리 사랑하기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랐다. 금필은 신혜왕후가 하는 일은 무조건 따르는데 버릇되어있었다.

왕건의 많은 비빈들모두가 신혜왕후에게만은 하나같이 머리를 숙이였으니 그것은 신혜왕후가 후실들은 물론 그들이 낳은 자식들까지도 똑같이 귀히 여기고 보살펴주고있기때문이었다.

신혜왕후가 빼여지게 고와하며 남달리 손이 더 간것은 태자 무와 장녀 락랑이었다.

금필은 김부에게도 마음속 진정을 담아 작별인사를 하였다.

《김정승! 귀한 옥체 무리하지 마시고 무사히 돌아와주소서!》

《작은아버님께서도 험로에 조심하시옵소서!》

김부는 락랑공주처럼 금필을 아버지로 불렀다. 그도 금필이 장인인 왕건과 의형제라는것을 알고있는것이였다. 게다가 금필은 왕건의 장인이 되는 사람으로서 김부에게는 금필이 장인의 장인인것으로 벼슬로서는 금필의 우에 있으나 인척으로 따지면 금필의 밑에 사람이 되는것이였다.

하나 그래서만도 아니였다.

김부는 자기의 인생전환에서 금필이 논 역할을 잊을수 없는것이다.

겨레의 통합이 민심의 핵이고 시대의 바람이라는것을 터놓고 주고 받은 첫 사람이 바로 금필이었던것이다. 그와 마주앉으면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개운해지였다. 사사로운 감정따위도 털어버릴수 있고 속

이 커지고 넓어지면서 마냥 유쾌해지곤 하는 것이었다.

김부는 이런 까닭으로 해서 남달리 금필을 존경하고 따랐다. 경주로 내려가는 이 시각에도 김부는 자기를 바래주러 멀리까지 따라내려 온 금필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무렵 태자 무는 내군대장 박술희와 함께 천안으로 기동하고 있었다.

후백제와 접전할 최전방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만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태자의 위용을 과시하는 진군길이였다. 후백제로 하여금 투항하든가 맞서든가 마지막 결심을 하라는 일종의 통고였고 선전포고였다.

고려태자가 군사를 이끌고 천안에 내려오자 기다렸다는 듯 후백제군이 응주성으로 올라왔다. 자그만치 6만이였다. 이미전부터 둔치고 있던 4만의 병력과 합쳐지자 10만이 넘는 대군이 응주일대를 뒤덮었다.

린근의 민가들이 즐지에 거덜났으며 주변의 곡식밭은 모조리 군량으로 결판났다.

후백제군은 처자들의 아우성소리를 귀등으로 흘려버려야 했다.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최후의 대격전을 앞둔 시각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견훤이 또다시 왕건을 찾아와 주청했다.

후백제가 10만대군으로 응주에서 공격을 하려 하는 때에 천안에 만명의 군사만을 두고 어떻게 할 심산이냐며 다시금 자기도 싸움터에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폐하! 상보어른의 요청을 들어주시오이다.》

금필은 견훤을 내세우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 리롭다고 생각했다.

《중소. 그럼 함께 출전하십시오.》

왕건은 응하였다.

9월이였다.

왕건은 금필과 함께 견훤이까지 데리고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천안

에 당도하여 태자의 군사와 합류한 후 관병식을 거행하였다.

《군사들은 들으라!

후백제는 평화로이 합쳐져서 함께 부흥을 도모하자는 고려의 간곡한 제의를 끝끝내 거절해나섰다. 란적 신검과 그 일당의 죄를 물어 천명으로 다스려야 하겠기에 우리는 드디어 꺾기하였다. 이 싸움은 후백제의 전왕께서 간절히 청하여 응해나선것인바 전왕과 짐이 총대장이 되어 직접 지휘할것이니 모두가 떨쳐일어나 따를것이다.》

왕건의 위엄있는 목소리가 관병식장에 울려 퍼졌다.

《알겠소이다!》

여러 장수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같은 시각 후백제진영에서도 점검의식이 진행되고있었다.

《왕건이 우리 아버지와 나란히 관병식을 거행했다며?!》

갑옷차림의 량검이 누구에게라 없이 묻고있었다.

신검과 능환이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능환은 량검의 분별없는 말투에 미간을 찌프렸다. 량검은 늘 봐야 신검이 왕이라는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세였다.

싸움이 박두해올수록 더했다. 신검은 말할것도 없고 능환자신마저도 무시하고 나섰다.

《4만밖에 안되는 군사로 우리의 10만대군과 맞서보겠다고?! 흥!》

량검은 코방귀까지 끼고있었다.

《왕건은 그 정도로 그칠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르게 예비군사를 깔고있을는지 어이 알겠니?》

신검이 량검을 시까슬렀다.

《우리의 뒤에도 고려군사가 있다는걸 명심하여야 하오이다. 라주에 둔치고있는 고려수군을 잊지 마소서.》

능환이 량검의 덤벼치는 교락서니에 슬며시 반격했다.

《옛 신라군도 류의하셔야 할줄 아오이다. 그들은 적은 수라 할지라도 익측으로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기에는 충분한 력량이오이다.》

장수 효봉이 끼여들었다.

《배심들이 왜 그리 알뜰하십니까? 그러게 5만의 군사는 떼어놓은 것이 아니겠소? 그대들은 고려장수들이 이제는 늙었다는 것을 모르시요? 그간에 싸워보시고도 그 점을 모르신단 말씀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워서 기필코 이기리라는 생각들을 왜 못하는가 말이요.》

량검은 중군장으로 후백제군사의 한도막밖엔 거느리지 못한 주제에 (우군장은 효봉, 좌군장은 통검이었다.) 왕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연방 힐난했다.

그의 기갈에 좌중은 금시 주눅이 들고말았다.

량검의 완력에 능환까지도 밀려나고있었다. 장수들은 량검의 손탁에 들어 그가 하자는데로 끌려가는 판이었다.

바로 이때 고려군이 천안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천안에서 철수하다니!》

능환은 정신이 얼퍼름해졌다.

(왕건이 어찌하여 불필요한 이동을 하는걸가?)

고려군이 6만이면 그것만으로도 대군이다. 6만이 움직이는데 드는 군력의 소모가 어느 만큼인가 하는것은 그들자신이 잘 알터였다.

어째서 지금의 유리한 지대를 포기하는걸가? 능환은 그 내막을 알아차릴수가 없었다.

고려군이 싸움터를 옮기려는것은 천안지대가 최후의 격전지로서 마음에 들지 않기에문이었다.

이곳은 후백제의 본거지나 같은 곳이고 인구도 조밀했다. 싸움에서 이겨도 후백제백성들의 피해가 막중할터였다. 후백제군자체도 많이 상실되어야 할터인데 거기에 또 일반백성들의 피해까지 겹쳐들면 그 한이 사무치게 될것이였다.

통일을 위한 싸움이지만 희생은 줄여야 했기에 민심을 미리 헤아리고 취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금필이 제안하여 취해진것이였다. 금필은 왕건이 자기와 이미 세운 각본대로 천안에 무력을 집결하고 태자 무까지 내려

보내어 공격준비를 갖추고있을 때에 이르러 생각을 고쳐하기 시작했다.

천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격을 해야 하리라는것이였다.

금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은 달무와 아람을 비롯한 완산주도성 안의 간자들이 보내온 최근소식들을 분석하면서부터였다.

현재 후백제의 민심은 심히 와해되어있어 고려와 죽기로 싸워 결판을 보려는 상층부와는 달리 대다수 백성들은 전쟁 그자체에 진저리를 치고있었다. 무모한 싸움으로 당하게 될 희생을 두려워하고있는 것이였다.

금필은 후백제땅에 만연하고있는 이러한 염전심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후백제의 이러한 민심을 요긴하게 써먹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래서 고려가 후백제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다. 뒤따라 싸움장소를 인구가 적고 또 후백제땅이 아닌 다만 후백제가 일시 차지하고있을뿐인 신라땅의 일선(경상북도 선산)으로 옮기게 했다. 금필의 이 제안을 왕건이 쾌히 승낙한것이였다.

정작 고려군이 일선으로 공격방향을 변경하자 이 소식은 천안부근의 백성들은 물론 그아래로 내려오면서 완산주도성까지 짹 퍼져 후백제민심이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저들에게 피해가 적어지리라는 안도감과 함께 전장에 나간 남정네들이 무사히 돌아와주기만을 바라는 기대감이 엇바뀌면서 싸움의지가 급속도로 무너지고있었던것이다.

쓰러지는 집안을 지탱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능환이인지라 전장정황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 후방의 민심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뿐더러 이런 상황으로 유도해간 고려군의 속내는 더우기 넘겨볼수가 없었던것이다.

《고려군이 일선으로 진을 옮겨가고있다 하나이다.》

전령이 재차 정황을 알려왔다.

《뭘, 뭘? 일선이라구?》

신검이 와플 놀라 반문했다.

고려군이 인가도 드물고 별보다는 야산으로 이어진 싸움에 불리한 산지로 이동하고있는것이다.

문제로 되는것은 일선이 천안에서보다 완산주까지의 거리는 백여리 더 멀지만 대신 동남쪽으로 깊숙이 내려와있어 완산주를 옆으로 공격하게 되어있는것이였다. 고려군이 북쪽에서가 아니라 동쪽에서 측면으로 공격방향을 잡은것은 후백제군이 천연방어선으로 리용할수 있는 금강중하류쪽을 피하고 쉽게 건널수 있는 금강상류계선에서부터 거침없이 밀고들어가는 의도에서였다. 고려군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데 보다 더 유리한 곳을 찾은것이였다.

왕건이 바라는데로 싸움을 결속하기 위해 금필은 지몽, 술희와 더불어 결전의 마지막전야에까지 작전안을 짜는데 고심했다.

고려군의 이러한 기도를 미처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후백제군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선으로 끌리워가지 않을수 없었다.

후백제군은 또다시 이동을 개시했다. 10만대군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주변을 짓밟아버렸다. 촌락들이 거덜나고 논과 밭이 썩대밭이 돼 버렸다.

능환은 이 혼란속에서도 서북방을 우려했다. 고려가 후백제군을 동남쪽으로 유인해놓고 서북쪽에서 내리칠는지 모를 일이었다. 후백제의 서해안이 고려군에게 제압당한 실정에서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정황이였다.

능환은 신검에게 군사를 갈라 응주 서쪽을 방비하도록 건의했다.

신검이 이에 응하여 5만을 떼여돌렸다.

그런데 이것이 량검의 분격을 촉발시켰다.

《고려군이 10만으로 일선에서 들이치려 하는 때에 군사를 가르다니 이 웬 말인가?》

실지로 고려군은 8만에 가까왔다.

명주 성주 순식이 만명의 군사를 끌고 급히 지원을 온데다가 금필의 기별을 받고 뒤미처 도착한 골암진 북쪽지대의 발해유민군사

3천에 그곳에 정착해사는 너진인들의 기병 9천 5백이 합쳐진 것이었다.

후백제의 간자들이 그 수를 늘여서 보고하는통에 고려군은 급기야 10만으로 둔갑하게 되었다.

《전하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다니요?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싸움을 치를수가 있소이까?》

허겁지겁 군막에 들어선 량검이 신검을 혼시하려들었다.

《동생은 너무하다. 이다지도 방자해질수 있는가?》

신검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이전에도 고려군은 라주를 기습했고 강주까지 빼앗은적이 있지 않나? 완산주는 코앞인데 아무때건 기습할수 있는거야. 그걸 모른다고 할수 있는가?》

《지금은 일선이오이다. 일선을 막아야 한단 말이요!》

량검은 쓰겁게 내뱉고는 휙 나가버렸다.

《저너석이?!》

신검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해가지고 한동안 붉으락푸르락 하고서야 주저앉았다. 노는 꼴로 봐선 당장에 목을 베여야 할것이나 그러지는 못하였다.

신검은 심지가 나약한편이었다.

둘사이의 푸르딩딩한양을 지켜보는 능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고했다.

(이 일을 어찌할고... 갈수록 험산이로구나.)

그럭저럭 후백제군은 일선으로 이동했다.

숨막힐듯싶은 무더위가 계속되고있었다.

사람도 말도 모두가 땀으로 미역을 감고있었다.

《고려군이다!》

전렬에서 들려오는 고탈소리에 능환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눈앞에 일리천(락동강상류)이 가로질렀는데 그너머로 고려군의 전렬이 늘어선것이 보이였다. 그뒤로 군막들이 전개되어있고 곳곳에서 지

휘기들이 바람에 펄럭이었다.

《진을 쳐라!》

신검이 소리치자 후백제군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좌군과 우군이 갈라지고 중군과 후군이 그뒤를 차지했다.

신검은 전방에 나와 고려군을 살펴보다가 흠칫했다.

고려군의 좌군 전렬에 휘날리는 견훤대왕지휘기를 본 것이었다.

(아버가 제 아들을 치러 나오다니?!)

신검과 량검은 전를했다.

군사들이 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를 어찌하면 종단 말이냐?》

신검은 머리를 싸쥐었다.

《싸워야 하오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죽이자고 온 것이 아니요?》

량검과 룡검이 동시에 부르짖었다.

《아버님께서 어찌면 저럴수가 있단 말인가! …》

신검은 탄식했다. 저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지 않고 제 아버지만 원망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견훤의 기발은 후백제군을 절망에로 휘저어놓고 있었다. 견훤의 총애를 받던 장수 애술과 효봉은 진작부터 얼굴이 까맣게 질려 전전공공했다. 후백제군은 싸우기 전부터 사기가 저락되고 있었다. …

견훤은 지금 참담한 기분으로 전렬에 서 있었다.

고려군의 좌군 총대장으로 나선 것이었다.

박술희와 기타 10여명의 장수들이 각각 만명씩 이루어진 기마군과 보군병력으로 좌익을 맡고 있었다.

우군에는 홍유를 위시한 10여명의 장수들이 역시 같은 수의 병력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중군에는 왕건과 태자 무, 지몽외에 금필, 왕순식 등 역시 10여명의 장수들과 더불어 기마군사 2만과 보군 3천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뒤에 또 1만 5천의 후원군이 대기하고 있었다.

두리둥둥 두둥둥...

고려군의 중군쪽에서 좌군이 먼저 공격할것을 명령하는 공격개시 신호가 울려왔다.

견훤은 백발을 휘날리며 앞으로 내달았다.

그의 눈앞으로 후백제군의 우군 전렬이 마주 달려나오고있었다.

화살전이 가능한 거리에 이르자 견훤은 문득 손을 들었다.

고려군 좌군이 일시에 멈춰섰다.

견훤은 단신으로 후백제군 코앞까지 말을 내몰았다.

후백제 우군의 전렬이 주춤거렸다.

자기와 마주선 후백제군을 바라보는 순간 견훤은 온몸이 떨려나기 시작했다.

(이 무슨 운명의 희롱이란 말인가. ... 내가 피땀을 바쳐 길러낸 군사들을... 평생을 바쳐 일궈세운 저 땅을... 정녕코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 하는가. ...)

견훤은 금시 까무러칠것만 같았다.

견훤은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다, 이제 늦었다. 징벌의 검은 이미 내려졌다!)

그는 다시금 앞으로 내달았다.

후백제군 전렬이 뒤설레이기 시작했다. 그들도 견훤을 알아본것이였다.

《탄신적자를 벌하고저 내가 왔다. 신검은 어디 있느냐?》

그는 숫구치는 분노를 겨우 녹잡히고 나직이 내뿔었다.

서슬이 덩딩한 견훤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옛모습 그대로였다.

후백제군사들은 얼굴이 흠뻑이 되어 절절매기만 하였다.

《대왕전하!》

후백제장수 애술이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주옵소서!》

그는 창을 거꾸로 들고 빌고있었다.

《신들을 용서해주옵소서!》

덕술과 효봉을 비롯한 후백제 우군의 장수들이 애술의 뒤를 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나를 따를 장수들은 내뒤에 서라!》

견훤이 웨치자 이들은 일제히 견훤의 뒤에 가섰다.

군사들이 너도나도 그 본을 따기 시작했다.

한번의 싸움도 해보지 않은채 후백제군 우군의 전열이 무너지고있었다.

이 모양을 지켜본 량검이 분노를 터뜨렸다.

《저런 늑다리… 쓸개빠진 놈들을 보았나! … 중군은 우군의 투항을 막으라! 좌군은 공격하라!》

량검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편발했다.

후백제의 우군은 뒤로부터 제편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견훤은 목청껏 소리쳤다.

《후백제 우군은 내 명령을 들으라! 후백제군의 중군을 막으라!》

급변하는 정황을 재빨리 판단한 술희가 뒤따라 령을 내렸다.

《고려 좌군은 나를 따르라! 후백제군의 중군을 막으라!》

술희는 말을 달려나오며 견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후백제 우군은 중군의 전열과 엉켜돌아가며 좌충우돌하기 시작했다.

그뒤로 고려의 좌군이 구름처럼 덮쳐들자 드넓은 벌판이 일시에 흙먼지구름속에 잠겨들었다.

치고받는 병쟁기소리가 아우성소리와 뒤섞여 일리천들판과 그뒤의 산밭로 메아리쳐갔다.

후백제군의 중군 후렬은 일단 물러났으나 중군 전열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갔다. 위낙 대군의 접전이라 일단 엉켜붙은 전열이 물러설 틈이 없었던것이다.

첫날 싸움은 해가 서산에 기울무렵이 되어서야 끝났다.

애술과 효봉, 덕술 등 투항해온 후백제장수들이 왕건에게 무릎을

끊었다.

《그만 일어나라! 그대들은 오늘부터 나의 장수들이노라!》

왕건은 만족하여 그들을 환영했다.

《신검은 어디 있느냐?》

견훤은 그 와중에도 신검을 찾았다.

《대왕전하! 신검은 중군에 있소이다.》

투항한 후백제장수들이 견훤에게 일러바치였다.

《하오면 좌군은 나를 따르라!》

견훤은 계속해서 쫓아갈 자세였다.

《상보어른! 오늘은 그만 쉬십시오. 이왕에 늦어진 일을 첫날에 다 하시겠소이까?》

왕건이 부드럽게 만류해나섰다.

《한시가 새롭소. 내가 불법무도한 자식들을 바로잡아주려고 이날까지 기다려온것을 폐하게옵신 모르신단 말씀이시오?》

견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덤벼치였다.

《폐하! 적의 중군을 계속해서 치는게 좋을것 같소이다.》

태자 무가 왕건에게 아뢰며 나섰다.

《태자마마의 생각이 옳은줄 아뢰오.》

금필이 즉시 태자 무를 지지해나섰다. 견훤을 내세워 얻어진 첫 싸움이 예견했던대로 번져지자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잠시 생각하고난 왕건은 머리를 끄덕였다.

《하오면 두번째 싸움은 태자가 맡아하도록 하라!》

왕건은 최후결전의 마감을 태자 무가 결속하도록 했다.

《그게 좋겠소이다.》

금필도 지몽도 기꺼이 찬동했다.

등 두둥, 두둥등등...

다시금 북소리가 울려퍼졌다.

고려군의 우군과 중군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후백제 중군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일리천들판이 또다시 자욱한 먼지구름속에 잠겨들었다.

량검과 룡검은 신검과 아귀다툼을 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서렬을 재편성해가며 고려군을 막아나섰다.

량검이 전렬을 맡고 그뒤에 룡검이 다음 렬을, 그뒤에 신검이 또 다음 렬을 맞춰가며 죽기로 맞섰다.

그러나 고려군은 공격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장수들이 앞장에서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련속 무너뜨려나갔다. 이 과정에 고려군 우군을 지휘하던 홍유가 화살에 맞고 쓰러졌다. 금필이 말을 몰아 달려가보니 이미 기운이 진한 상태였다.

《홍유대광어른! 이게 어인 일이시오이까!》

금필은 목이 메여 더 말을 할수가 없었다.

《금필대광!》

희미해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홍유는 마지막힘을 다해 입을 눌렀다.

《우리 좋은 기억만 하세. … 싸움을 잘 결속해서 꼭 통일된 고려를 세워주게. 그리고 폐하를 잘 받들게. … 어린하리오만 그대가 있어 난 마음놓고 눈을 감겠네.》

홍유는 스프르 눈을 감아버렸다.

《홍유나리! …》

금필은 홍유를 그리안으며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목청껏 웨쳤다.

《군사들! 홍유대광의 원수를 갚자. 앞으로! …》

와! …

홍유의 죽음을 목격한 고려 우군은 리성을 잃고 맹공격을 계속해나갔다. 우군에는 홍유와 수십년을 함께 싸워온 군사들이 많았다. 이들이 쉬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달는통에 공격은 밤에도 멈춤없이 계속되었다.

신검은 고려군이 밤에도 자지 않고 공격해오자 넋을 잃고말았다.

그토록 검질기게 추격해올줄은 미처 생각도 못하였던것이다.

밤이 새고 새날이 밝을무렵까지도 고려군의 추격전은 계속되고있었다.

능환은 고려군의 공격의 예봉이 신검에게 가해지고있는것을 간파했다.

견훤이 어떻게든 신검형제를 붙잡아야 한다고 부추기고있을것이 뻔했던것이다.

능환은 퇴각로를 추풍령쪽으로 잡았다. 한시바삐 후백제땅으로 들어서서 고려군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심산에서였다. 신검은 응하였다. 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추풍령을 넘어 겨우 신라지경을 벗어났다.

싸움이 일어 닷새째 되는 날에 신검은 황산(충청남도 론산부근)고을에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리었다.

그러나 고려군의 추격은 계속되였다.

할수없이 신검은 완산주를 비켜돌아 2백여리 더 내리빠여 마성(광주부근)으로 들어갔으나 이미 대기하고있던 고려군(라주에 둔치고있던 고려군, 금필이 달무에게 연락을 띄워 기동시켰었다.)에 의해 그만 포위에 들고말았다.

신검의 휘하에는 1천여명의 기병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퇴각에 퇴각을 거듭하는 과정에 후백제군은 완전히 각개격파되고말았던것이다. 신검과 능환은 행여 어디서건 증원군이 올것을 바랐으나 그것은 헛된것이였다.

고려군은 흩어진 후백제군을 포위하는족족 다스리고는 교향으로 돌려보내였다.

도성인 완산주도 이미 점령당한 상태였다. 고려군은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선포했고 과거를 묻지 않을터이니 집에 돌아가 생업에 전념하라고 권고했다. 후백제군은 고려군의 이 조치에 환호하고있었다.

신검은 그만 항복하기로 결심하고말았다. 고려왕이 아량을 베풀어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헛되이 기대한것이였다.

...

견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꿇어엎드린 세 아들녀석들을 굽어보았

다. 마성까지 신검을 잡겠다고 이악스레 따라온 견훤이었다. 도중에
로환을 이기지 못하고 말에서 굴러떨어졌었다. 왕건이 어의를 붙이
여 겨우 눈을 뜰수 있었다. 회복될 가망은 없었다. 그는 림종의 시
각에 이른것이였다.

투항해온 자식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였다.

신검은 배옷을 걸치고 온몸이 오라줄로 묶여져있었다.

나라를 바치며 투항하는 왕들이 하는 차림새였다. 그 바쁜 속에서
도 고급에 이어오는 규례를 빈틈없이 차리어 세번 절하고 아홉번 머
리를 조아리는 투항례식을 실수없이 하고있었다.

그 꼴을 굽어보는 견훤의 마음은 뼈를 깎는듯 아프기 그지없었다.
(저것들이 저 꼴을 보이자고 그것을 하였구나! ... 저 짐승같은 놈
들이...)

견훤은 그만 두눈을 감아버렸다.

이때 왕건의 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후백제왕자들은 들으라!

집안에 아버지가 있어 자식들이 있고 나라엔 임금이 있어 신하가 있
고 백성들이 있는것이다. 자식은 아버를 받들고 신하는 임금을 받들
어야 가정도 나라도 편안할터인데 그대들은 부왕을 유괴하여 룡상을
찬탈하고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말았다. 천륜을 어기고 의리를 저버
린 그 죄 알겠는가!》

추상같은 웨침소리에 신검은 금시 자라목이 되였다.

《어리석은 이놈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그만... 만고에 다시없
을 큰죄를 지었소이다. 백번 죽어 마땅하오나... 한번만 기회를 주신
다면...》

《무엇이라?! 한번만 기회를 달라구?! ...》

견훤은 신검의 덕두리에 악이 치받치였다.

《나라의 사직을 이 꼴로 만들어놓고도 살기를 바란단 말이냐? 룡
상이 욕심나서 제 아버를 가두고 제 동생을 죽인 이 천하에 무도한
놈아! 어리석고 어리석은 이 천치놈아! ...》

견훤은 너무도 억이 막혀 말도 제대로 못하였다.

(망했구나... 망했어! 나라도 가정도 내 한생도 다 망했구나!)

속으로 거듭 부르짖던 견훤은 피눈물을 머금은채 그만 졸도하고말았다.

왕건은 능환을 심히 질책하였다.

《네가 왕자들을 꼬드겨 제 임금을 내동맹이치게 한 그 능환이란 놈이냐?》

《그러하옵니다.》

《신하라면 신하다와야지 네깻놈이 뭐라고 감히 임금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하고 나선단 말이냐? 이왕에 임금을 모시고 나섰으면 시작과 끝이 일관해야지 모시던 임금을 중도에 헌신짝 버리듯 쫓아버려?! 왕자들을 반역으로 꼬드긴 그 죄 하나만으로도 너는 목을 베고도 남는다.》

《알고있소이다. 어서 죽여주사이다.》

능환은 두눈을 꼭 감고 목을 내밀었다.

(내가 잘못했어. 견훤이 하자대로 내버려두어야 하는것을... 신검이 하나 금강이 하나 고려에 먹히우기는 마찬가지인것을... 중뿔나게 왕위계승에 손을 대더니...)

능환은 금강이 신검보다 훨씬 낫다는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한사코 이를 부인해나섰던 일을 늦게나마 후회했다. 그것은 단지 제가 애초에 신검에게 정을 들였던것을 떼고싶지 않아 그리된것일뿐이었다. 제가 정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뒤틀린 소가지를 바로잡지 못한때문이었다.

그보다는 후백제조정정 정사는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해온 그 우월감이 문제로 되었다는것을 그는 비로소 느끼었다. 임금이 견훤을 존중하는 마음이 꼬물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임금의 심중을 늘 헤아리고 임금의 뜻을 정히 따르는데만 버릇되어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터였다. 신하로서의 체신머리를 바로하는 일을 잊어버린것이 그의 실책의 원인이었다.

(내가 교만해진때문이다. 극도로 오만해서 임금을 깔보아도 분수가 있지 감히 임금우에 나를 올려놓고 대사를 좌우지하려들다니...

임금의 신의를 저버리고 감히 역모를 꾀드긴 역신인 내가 무슨 낮으로 더 살기를 바랄소냐! ...)

능환은 스스로 칼을 받았다.

왕건의 령에 따라 량검과 룡검은 진주로 귀양을 보냈다.

신검은 늦게나마 자진투항했다 하여 관직을 내렸다. 허나 그것은 견훤의 정상이 가엾기 그지없어 잠시 취한 조치였다. 견훤이 다시금 정신을 잃고 실려간 뒤 이들 세 왕자는 처형되었다. ...

금궐은 왕건의 완산주입성을 서두르지 않도록 했다. 만에 하나 단 하나의 반기를 드는자에 의해서도 왕건의 신변에 뜻하지 않게 이상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지몽과 짜고 완산주도성을 정리하는데 사흘을 보내었다. 그사이 지몽에게 붓을 들려 왕건의 이름으로 된 통고장을 먼저 완산주도성에 내돌리었다.

《후백제국은 폐지되었다. 이 땅에는 오직 고려국만이 존재한다. 모든 백성들은 고려국임금이 돌보아줄것이다. 고려군은 백성들의 생명안전에 만전을 기할것이다. 부디 안심하고 고려군을 맞이하라.》

후백제주민들은 포로되었던 자기 군사들이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돌아오는 속에 고려왕의 통고장까지 보고서는 다들 안심했다.

금궐은 달무와 아람에게서 안전신호까지 받고서야 왕건의 완산주입성을 거행케 했다.

완산주주민들과 후백제군사들은 고려군의 도성입성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완산주도성은 고려군을 환영하는 인파로 차고넘치였다.

금궐은 도성에 들어간 그날로 것처럼 그리던 달무와 아람을 만나

뜨겁게 포옹하였다.

견훤은 황산의 이름없는 절에 누워있었다.

신검이 왕건에게 무릎을 꿇고 후백제를 바치는 그 비참한 모양을 보다가 다시금 졸도한 뒤 이곳으로 옮겨진것이였다.

완산주도성안에는 다시는 들어가고싶지 않다 하여 비껴올라가다가 이곳에서 주저앉은것이다.

그는 이미 더는 움직일수 없는 몸이였다.

왕건이 보낸 어의가 견훤의 림종을 지키고있었다.

그옆에 견훤의 사위 박영규가 자리를 함께 하고있었다. 그는 일리 천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즉시 고려군에 넘어와 신검의 증군을 허무는데 합세하였다. 왕건이 완산으로 공격하면서 그에게 견훤에게 가보라 하여 달려온것이였다.

견훤의 다른 사위인 지훤(그도 싸움이 시작되자 고려군에 넘어와 량검의 군사를 쳤다.)도 와있었다.

고비와 신강, 애랑 등의 얼굴에도 슬픔이 력력하였다.

날이 밝을무렵에야 견훤은 겨우 정신을 차리였다.

희뻑히 밝아오는 새벽하늘의 한조각이 승방의 동쪽피창으로 내다 보였다.

견훤은 자신이 드디어 인생의 종착점에 닿은것을 깨달았다.

(내 한생이 이렇게 끝나는것인가! ...)

견훤은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았다.

성공도 있었지만 구경은 실패로 끝난 인생이였다.

신검이나 능환이때문인가? 그건 아니였다.

그는 하늘이 자기를 외면했다고 생각했다. 대신 왕건의 편을 들어 주었다고 하늘을 원망했다.

견훤은 모르고있었다.

자기가 한생을 후백제왕국재건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의 어귀에는 이르렀으나 그 이상의 꿈이 없은탓에 실패하고만것을...

생의 말년에 견훤은 자기도 세나라통일의 주역이 될수 있다고 생

각하였었다. 하여 왕건과 자웅을 겨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초지가 아니였었다. 통상에 올라앉아 신라를 넘겨다보면서 차츰 그에 생각이 미쳤을뿐이였다.

그러나 왕건은 달랐다. 그는 금필을 위시한 젊은 무장들과 함께 흥안의 시절부터 자나깨나 겨레의 통일을 꿈꾸어왔다.

품은 뜻이 크고 장하니 따르는 인재들이 많을수밖에... 민심은 이들에게 모아졌고 끝내는 겨레통합의 뜻을 이룬것이였다. 고구려의 후손들답게 고구려가 존재한 전기간 추진하였던 겨레의 통일위업을 이들은 기어코 실현하고만것이였다.

왕건이와 마찬가지로 금필도 당시의 시대적요구와 겨레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감수하고나선 사람이였다. 단지 느끼는것으로가 아니라 그 실현에 몸을 내댄 선각자였다.

한 인간의 성공이 시대와 력사의 지향을 실현코저 얼마만큼 헌신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을 견훤은 모르고있었다.

견훤은 후기 세나라가 존재하게 한 사람이자 끝나게 한 사람이였다.

이 후기 세나라는 신라가 령토확장야욕실현과정에 남긴 력사적오류를 시정하고 겨레가 갈망하는 통일의 실현을 준비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견훤은 이 시대에 태어나 살면서 당대의 지향과 요구를 왕건이나 금필이 같은 고구려출신 무장들만큼 리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민감하지 못한 정치가는 뒤전에 밀려날수밖에 없는것이다.

병신년(936년) 9월 8일 견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왕건의 령에 따라 견훤의 장례는 국상에 대등하게 치르어졌다.

본의든 아니었던 그는 말년에나마 통일의 결속에 이바지한 력사의 한 인물이었던것이다.